



선방 가는 길 글 정찬주 | 열림원 | 1만1천원

청산은 바삐 떠도는 흰구름 보며 웃네



해인사 소림원 유나 원웅 스님과 함께 오솔길을 걷는 저자 정찬주 씨(사진 왼쪽).

‘이 곳은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는 선원입니다. 참배객 등 일반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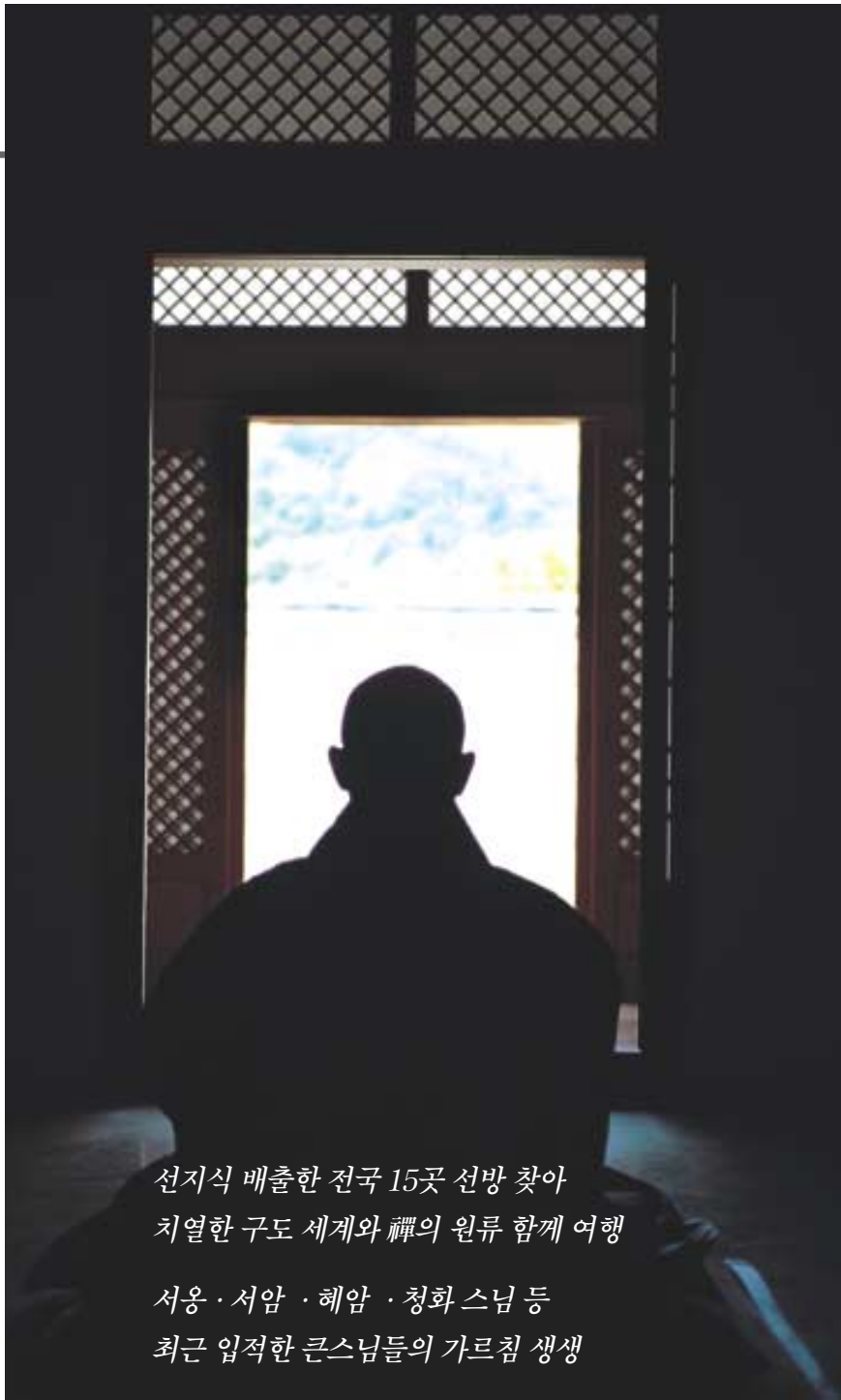
사람 경내 그중에서도 선원(禪院)이 있는 곳이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문구다. 일주문 밖 매표소를 들어갈 때 설령 관광 온 기분이 들지라도 촌철살인 같은 ‘일반인 출입금지’라는 내용을 보는 순간 바로 이곳이 속세와 격리된 외딴섬(?)이라는 외경심이 전해진다.

<암자로 가는 길>의 저자 정찬주씨가 이번에는 암자가 아닌 바로 전국의 선방들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한데 모아 책을 펴냈다. <선방 가는 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전



국 선원(禪院)에 대한 가이드북 정도로 생각한다면 적절치 못하다. 선방(禪房)을 선방답게 만들어주는 참된 선승(禪僧)들에 관한 이야기가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구름에 달가듯이 흘러가는 ‘나그네’ 입을 자칭하는 저자가 몸소 답사한 선원은 백양사 운문선원을 비롯해 봉암사 태고선원, 해인사 소림원, 백장암 백장선원, 상원사 정랑선원 등 총 15곳. 이 곳에서 저자는 깨달음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지식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엄격함과 따스한 수행의 향훈을 저자 특유의 간결하고 담백한 필체로 들려준다. 특히 그 선지식들중에는 해인총림의 해암 방장 스님, 봉암사 태고선원의 서암 조실 스님, 성류사 청화 조실 스님, 백양사 고봉총림의 서옹 방장 스님과 같이 최근 2-3년 사이 입적해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들도 포함돼 잠시나마 눈 시울을 붉게 만든다.



선지식 배출한 전국 15곳 선방 찾아
치열한 구도 세계와 禪의 원류 함께 여행
서옹·서암·해암·청화 스님 등
최근 입적한 크스님들의 가르침 생생

지난해 입적한 청화 스님은 백장암 백장선원에 머물며 수행할 때 수건 두 장을 벽에 걸어놓고 살았다고 한다. 이유를 물으면 “공부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끊어지지 자꾸만 눈물이 나므로 걸어놓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해암 스님은 “저게 먹고 공부하다 죽어라”는 말을 남기며 무엇을 일단 하기로 맹세했으면 전 인생을 걸어보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서옹

스님은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산 사람이 있다”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마음 가짐으로 살겠느냐”고 일갈했다고 한다.

선방 생활이 견디기 힘든 고된 수행이라는 것은 성철 스님 제자이자 조계종 종정인 법전 스님의 일화에서 잘 알 수 있다. 추운 겨울, 찬 밥을 양재기에 떠서 김치 조각 하나 놓고 대충

먹고는 돌솥으로 나가 찬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는 게 법전 스님이 드신 공양의 전부였다. 그래도 스님은 “마음을 밝혀 눈을 떠라. 뜨겁게 한 생을 걸고 화두를 참구해서도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풍동으로 나를 쳐라”고 자신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해인사 소림원의 용맹정진은 입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한다. 안겨 때마다 1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장좌불와가 기본이고, 30분 이상 졸거나 자리를 비우면 즉시 퇴출 명령이 내려진다.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8년 장좌불와로 수행 정신의 극점을 보인 성철 스님은 단연 귀감이다.

하루는 수행자가 성철 스님께 ‘공부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자 스님은 바로 꾸짖었다고 한다. “니 정말 공부는 해보고 하는 소리냐.”

이렇듯 선의 가풍이 살아있는 선방들의 풍경과 스님들의 일상, 여러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정갈하게 하게 정리한 저자의 글맛과 함께 사진작가 유동영의 빼어난 컬러 사진들이 선승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이 책의 두드러진 점이다.

이 책은 크게 두 갈래의 독특한 구성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 갈래는 치열한 구도의 현장에서 지혜와 진정한 나를 발견해가는 일종의 공간 여행이고, 다른 한 갈래는 선의 원류를 찾아 먼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선객들의 계보를 찾아가는 일종의 시간 여행이다. 저자는 선의 정신과 진실한 나를 향해가는 이 여정을 통해 수행과 일상이 하나된 삶이야말로 진정한 구도의 실천임을 깨닫게 해준다.

저자는 또한 이 책의 저술과 여정이 그리 녹록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서울을 떠난 것이 공연한 객기를 부린 것 같아 가슴 뻠뻠할 때는 방백에 초의 스님의 시 구절을 적어 놓기까지 했다. ‘청산이 바삐 움직이는 흰 구름을 보고 비웃는다’는 구절로 묵묵한 청산을 닮아 보고 싶은 마음에 이 구절로 스스로를 다독거리며 재발심했다고 털어놓는다.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1분의 지혜 고집하지움 | 꿈꾸는 돌 | 9천5백원

1분은 우리에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1분이라면 말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1백여편의 일화와 잠언은 1분만에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짧다. 때로는 가벼운 이야기거리로, 때로는 유익한 인생의 조언서로 삶의 무거운 때를 맑고 시원하게 씻어 주며 어디선가 부딪혔던 일처럼 다가오지만 이 책을 읽는 1분만큼의 짧은 시간은 아무일 없이 땅상에 사로잡혀 보낸 1시간보다도 더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준다. 그만큼 군더더기 없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아 한토막씩 읽다보면 가슴속이 무엇인가로 꽉 채워진 느낌이 들 정도다. 또한 일상의 삶에 지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들, 늘 행복을 꿈꾸지만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도 빈 항아리처럼 자신을 비우는 법을 함께 가르쳐준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신홍사 주지 마근 스님의 ‘홍락한 세상에서 만나는 고집하지움’ 시인의 고요한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던지시게 해주어 준다. 가끔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보고 싶을 때, 크진 않지만 강한 외침으로 우리를 일깨워 줄 책이다.’라는 주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1분 찾기

삶의 목은 때 씻어줄 감동 가득한 잠언집

천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그중 감명 깊었던 일화 두 토막을 소개한다. 어린 수도자 하나가 사원에서 경전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스승이 다가서서 물었다. “무슨 경전이냐?”

수도자가 공손히 대답했다. “유마경인데요.” 그러자 스승이 다시 물었다. “뭘 읽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너는 무슨 경전이냐 말라.” 이 말에 어린 수도자는 퍼뜩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야기 속의 영적 스승은 수도자에게 문자로 쓰인 경전에만 매달리지 말고 바로 자기 자신을 읽고 되돌아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불성이 모두 자기 자신 속에 있으니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읽을 것을 권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하나 더 소개한다. 폴란드 태생의 랍비 하페즈 하림의 이야기다. 하페즈가 미국 뉴욕에 살고 있을 때였다. 한 여행자가 우연히 그의 집을 방문했다. 유명한 랍비의 집인데도 방도 하나밖에 없고, 그 방마저 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여행자는 무척 놀랐다. 가구래야 고작 탁자와 의자 하나뿐이었다.

“랍비여, 집엔 왜 가구가 별로 없는 것입니까? 나머지 가구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랍비 하페즈가 여행자에게 반문했다.

“그러면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소?” “제 가구라니요? 전 여행을 온 사람 아닙니까 여행을 온 사람이 무슨 가구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랍비 하페즈가 말했다. “허허, 나 역시 마찬가지요. 나도 이곳에 여행을 온 사람일 뿐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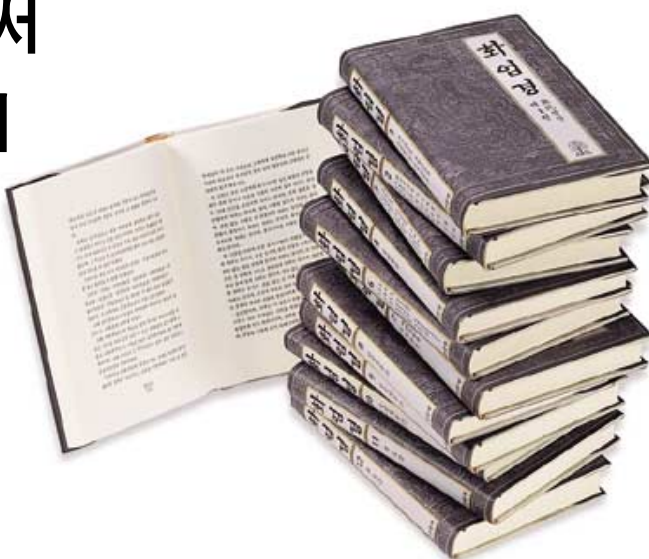
이렇듯 짙은 글들이지만 술술 읽혀지고 읽음과 동시에 고개가 금방 끄덕여질 정도로 내용도 쉽고 간결해 특히 바쁜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 같다. ■김동현 (명사출판사 PD)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본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 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童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본 화엄경 전 40품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의 특징

- ① 80권본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본 화엄경 원문 수록
-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십시오.
-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계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계승
농협 053-02-109450 윤계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계승

도서출판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민족사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